



| 대우조선해양 |

Exchange, ISA, AD, MOM을 기초로 혁신적인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구축

2005년 12월 대우조선해양이 새로운 메일 시스템을 오픈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업계 최초로 메일, 보안, 사용자 인증 통합, 관리 등 메시징 관련 통합 인프라를 구현하는 혁신 사례인 만큼 관련 업계 초기의 관심사로 회자되었던 케이스이다. Exchange Server, ISA, MOM, AD를 통해 단순한 업무 지원 도구로 인식되던 메시징 서비스를 파트너와 가족사까지 포괄하는 전사적 협업을 가능케 하는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로 재탄생시킨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소개한다.

글 ■ 박창선(IT 칼럼니스트) 일러스트 ■ 김원선

SITUATION_ 메일 서비스의 성능 개선 한계 명확

대우조선해양의 메일 시스템의 역사를 보면 2000년을 전후로 큰 변화가 있었다. 2000년 이전에는 주로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노츠 기반의 메일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2000년부터는 'IntraHome'이라는 대우조선해양의 그룹웨어 상에서 웹 기반의 메일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편의성과 사용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그룹웨어와 메일의 통합은 긍정적인 결과만 제공하지는 않았다. 나날이 늘어가는 메일 관련 서비스 이용자 수와 활용 범위를 감당하는 데 있어 퍼포먼스가 따라주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2000년 이후 메일 사용자 및 사용량 증가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IT 기획팀은 메일 서비스의 성능 개선과 관련해 1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때그때 조금씩 성능 개선을 위해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개발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대우조선해양 IT 기획팀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심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을 비교해본 결과 대우조선해양 IT 기획팀은 메일 서비스의 가치(Value)를 확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고 보안, 관리 등이 통합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구축으로 투자 전략을 세웠다.

SOLUTION_Exchange, ISA, MOM, AD로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구축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구축으로 방향을 정한 후 대우조선해양은 구체적인 솔루션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현옥홍 부장은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염두에 두고 기획에 들어갔을 정도"라며 "노츠의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추구하는 인프라 구현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change Server 도입을 결정한 후 대우조선해양 IT 기획팀은 인프라 구성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 도입 로드맵을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메일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로 활용기 위해서는 웹 상에서의 안전한 메시지 전달과 계시를 보장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어 SSO(Single Sign On)와 같이 통합된 사용자 인증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실행안이 도출되었다. 여기에 서비스의 가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합 관리 환경까지 더한 것이 대우조선해양 IT 기획팀이 구상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였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추진된 작업은 Exchange Server와 ISA 도입이었다. 이 작업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인 굿센이 담당하였으며 2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사실 Exchange Server와 ISA의 조합은 관련 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듯 깊은 사례다. 현옥홍 부장은 "조선 업계의 경우 본사와 지사, 현장, 파트너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비즈니스 환경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메일 역시 글로벌하게 서비스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제가 바로 안전한 웹 게시 및 전달을 위한 보안"이라고 강조하며 ISA를 Exchange Server와 함께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ISA의 경우 메일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포털 서비스에도 일부 적용되었다. 이번 Exchange Server와 ISA 도입은 대우조선해양만의 이슈가 아니었다. 가족사의 메일 서비스까지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메일 서비스가 개통된 것은 2005년 12월이었다. 메일과 관련된 백 엔드는 크게 바뀌었으나,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다. OWA(Outlook Web Access)를 활용해 기존 그룹웨어 인터페이스 상에서도 메일 서비스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메일과 보안 체제를 완성한 후 대우조선해양 IT 기획팀은 곧 바로 AD와 MOM 도입에 착수하였다. AD 도입은 3단계로 나누어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며 2006년 7월 1단계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현옥홍 부장은 "부서별, 서비스별로 분산된 AD를 통합하여 SSO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1단계이며 그 다음으로 패치 관리와 자산 관리로 AD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AD는 대우조선해양이 마련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한 축인 동시에 또 하나의 독립된 인프라"라며 "이는 각종 서비스의 사용자 계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산, 패치 업그레이드 현황 및 배포 등을 중앙 집중화하여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었다. 한편 MOM의 경우도 2006년 6월까지 도입이 마무리된다.

BENEFIT_ 업계 최초로 협업 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마련

대우조선해양 IT 기획팀은 이번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마련을 통해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는 성능 이슈를 개선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한 것이다. Exchange Server 도입 이후 성능 개선은 IT 기획팀 입장에서 볼 때 놀라울 정도라고 한다. 과거와 달리 실시간 기반으로 전달됨은 물론이고 시스템 리소스 사용량도 연말 연시 피크 타임이 돼도 거뜰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의 경우 라이선스 및 시스템 유지 보수 면에서 유닉스 환경에 비해 윈도우 환경이 상대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성능 대비 비용 절

감 효과가 큰 것으로 대우조선해양 IT 기획팀은 보고 있다.

두 번째 효과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지원을 위한 보안성이 강화된 메시징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과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다. 현옥홍 부장은 "생산성은 기술이 우수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얼마나 편하게 느끼며,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며 "편의성과 보안성은 사실 균형을 찾기 어려운 이슈지만 ISA와 AD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체제 하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 효과는 전사적 협업 체제 조기 정착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기틀을 다졌다. 현옥홍 부장은 "현재 LCS 및 Infopath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협업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본격적인 커뮤니케이션 혁신에 나설 계획" 이를 통해 정보 근로자들의 생산성 혁신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www.microsoft.com/korea/magazin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se Study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로 새로운 비즈니스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례를 소개하는 칼럼입니다. 본 사례의 소개에 협조해 주신 고객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INTERVIEW_ 대우조선해양 IT 기획팀 조희중 팀장

“업계 유일의 통합 메시징 인프라 구축”



▶ **메일 시스템 교체 배경과 프로젝트 범위는?**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성능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이 검토되었으나, 기획을 하다 보니 이를 기회 삼아 차세대 메시징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단순한 메일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보안, 인증, 관리까지 포괄하는 인프라 관점에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 **파트너로서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차별화 요소는?** 우리처럼 단기간 내에 차세대 메시징 인프라를 마련할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변화 관리'라고 본다. 기업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 관련 프로젝트에는 '생산성 향상'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이번 작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다. 기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기술을 수용할 최종 사용자가 얼마나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메시징 관련 정보화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친숙하고 다양한 활용 시나리오 도출이 가능하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과 제품 포트폴리오의 강점은 다른 벤더와 확실히 구분 되는 장점이라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PROJECT OVERVIEW** 분야 . 조선 소프트웨어 .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Microsoft Exchange Server 2003, Microsoft Internet Security and Acceleration Server 2004, Microsoft Operation Manger 2005 구성 . Exchange Server 2003, ISA, AD, MOM을 주요 축으로 하는 새로운 메시징 인프라를 구축

| 호남석유화학 |

기업 혁신 부르는 지식경영포털 솔루션 'MOIN'으로 전사적 IT 플랫폼 통합 그룹 차원의 M&A 시너지 효과 극대화



2003년과 2004년에 KP케미칼과 롯데대산유화를 잇달아 인수·합병하며 국내 2위 규모의 석유화학 그룹으로 재탄생한 호남석유화학이 최근 3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IT 운영 인프라를 통합하는 지식포털 시스템을 가동시켰다. 3사의 합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IT 고도화 작업의 일환으로 진정한 ‘한 몸 경영체제’로 거듭나기 위해 호남석유화학이 택한 것은 Microsoft .NET 기반의 지식경영포털 솔루션 ‘MOIN’. 롯데그룹 내 유화 3사의 그룹웨어, 지식관리, 문서관리, 정보관리 등을 한데 묶어내기 위해 호남석유화학이 풀어간 IT 통합 노하우를 소개한다.

글 ■ 류재은(자유기고가) 일러스트 ■ 김원선

SITUATION_ M&A 시너지 효과 극대화할 통합된 IT 인프라 요구

합성수지, 화성, 기초유분 등의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는 호남석유화학은 롯데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사로 지난 2003년과 2004년 KP케미칼과 롯데대산유화를 새로이 맞이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공격경영에 나서고 있다. 호남석유화학은 2009년 3사의 통합을 앞두고 진정한 한 몸 경영체제로 거듭나기 위한 내부체제 재정비에 돌입했으며, 조직 통합이라는 과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낼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호남석유화학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전략은 바로 IT 인프라의 통합화. 서로 다른 경영시스템과 이종의 IT 체제로는 업무 수행의 시너지를 최대로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호남석유화학 정보전략팀 선우기병 과장은 “M&A 이후 서로 다른 IT 체제와 업무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3사를 통합하여 조직 통합력을 동반 상승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그룹웨어와 지식관리, 문서관리, 정보관리 시스템을 아우르는 지식포털(EKP; Enterprise Knowledge Portal)을 구축하게 됐다”며 “3사의 서로 다른 눈높이를 고루 충족시키는 동시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향후 유연성을 담보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솔루션을 선별한 끝에 Microsoft .NET 기반의 지식경영포털 솔루션 MOIN을 선택하게 됐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SOLUTION_ .NET 기술 반영된 지식포털 패키지 MOIN으로 3사 통합 인프라 완벽 구현

호남석유화학이 진행한 이번 지식포털 통합 구축 프로젝트는 호남석유화학과 롯데대산유화, KP케미칼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합 IT 구조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통합 이전까지 호남석유화학은 롯데정보통신의 eKW.net을 도입해 지식포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던 반면, 롯데대산유화는 그룹웨어로 WebPlus의 PlusWare를, KP케미칼은 핸드소프트사의 웹 버전 그룹웨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호남석유화학은 3사가 갖추고 있는 IT 시스템과 문화적 차이들이 기업 시너지 창출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3사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합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동시에 지식 관리 통합 운

영을 통해 3사의 핵심 역량을 흡수함과 동시에 향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도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주요 포석이었다.

2005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롯데정보통신의 지식경영포털 솔루션 MOIN 패키지를 중심으로, ‘lottechem.com’ 도메인을 사용하는 AD(Active Directory) 인프라의 통합 작업이 동시 진행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솔루션 공급사이며, 실질적인 구축 작업을 진행한 롯데정보통신의 기술지원팀은 1단계 작업으로 3사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 상세한 업무 분석과 전략 수립 과정을 거쳤으며, 2단계 작업으로 실질적인 EKP 구현→서버 셋업→시범 운영→오픈→안정화 과정을 탄탄하게 구성해 최적의 프로젝트 스케줄에 맞춰 통합 과정을 진행했다.

호남석유화학 정보전략팀 선우기병 과장은 “롯데정보통신의 MOIN은 Microsoft SQL Server 2005를 비롯, SharePoint Server(이하 SPS) 2003 등의 최신 웹 서비스 기술이 녹아든 최적의 지식포털 패키지였던 만큼 이번 통합 IT 구축 프로젝트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히고 “현재 그룹웨어부터 전자결재, 지식관리, 문서관리, 조직도, 관리도구 기능 등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그룹 3사 임직원들이 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간제 시스템인 SAP R3와 완벽하게 연동되어 아웃바운드, 인바운드에서 동시에 전자결재가 가능해지는 등 조직 통합을 위한 IT 도구로 매우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BENEFIT_ 통합 IT 플랫폼 구축으로 합병 시너지 효과 극대화

이번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호남석유화학이 거둬들인 가장 큰 효과는 그룹 표준의 지식포털 구축으로 합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IT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호남석유화학은 M&A 이전, 이종의 시스템을 사용해온 KP케미칼과 롯데대산유화를 새롭게 맞이하며 상이한 그룹웨어 패키지와 각종 기업 IT 인프라가 혼재된 시스템의 통합 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시스템 관리에 대한 부담 역시 상당했다. 선우기병 과장은 “개별적으로 사용해오던 시스템을 동일한 플랫폼으로 통합 구축하면서 기업 간,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이 매우 원활해졌으며, 협업 기능의 강화와 동시에 임직원 모두가 롯데그룹 일원이라는 소속감이 확산되었다는 측면에서 구축 효과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2500명의 임직원 전체가 단일 접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됨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지식포털 시스템이 조직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 시너지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3사가 공동으로 IT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향후 시스템 확장 시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투자비 절감을 이루어냈다는 점도 크게 평가하고 있다. 선우기병 과장은 “기존에는 호남석유화학이 단독으로 사용하던 웹 서버에만 두 대의 시스템이 투입될 정도로 부담이 컸으나 이번 3사 전체의 통합 과정에서는 4대의 서버만으로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했다”며 “아직 정량적 수치로는 산출하지 않았지만 IT 운영 효율화로 TCO 측면에서 최소 30% 이상의 향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프로젝트의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롯데정보통신의 MOIN을 통한 유화 3사의 지식포털 구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구축 효과가 롯데그룹사 전체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정보통신 기술지원팀의 남환우 과장은 “이번 3사의 프로젝트는 그룹 전체로 지식포털이 확산되기 이전의 파일럿(Pilot) 프로젝트와 같았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도입 효과가 입증된 만큼 롯데카드를 비롯한 그룹 전체 계열사로 MOIN을 확장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더 자세한 정보는 www.microsoft.com/korea/magazin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TERVIEW 호남석유화학 선우기병 과장 롯데정보통신 남환우 과장



“그룹 계열사 전체로 지식경영포털 확장 구축해 나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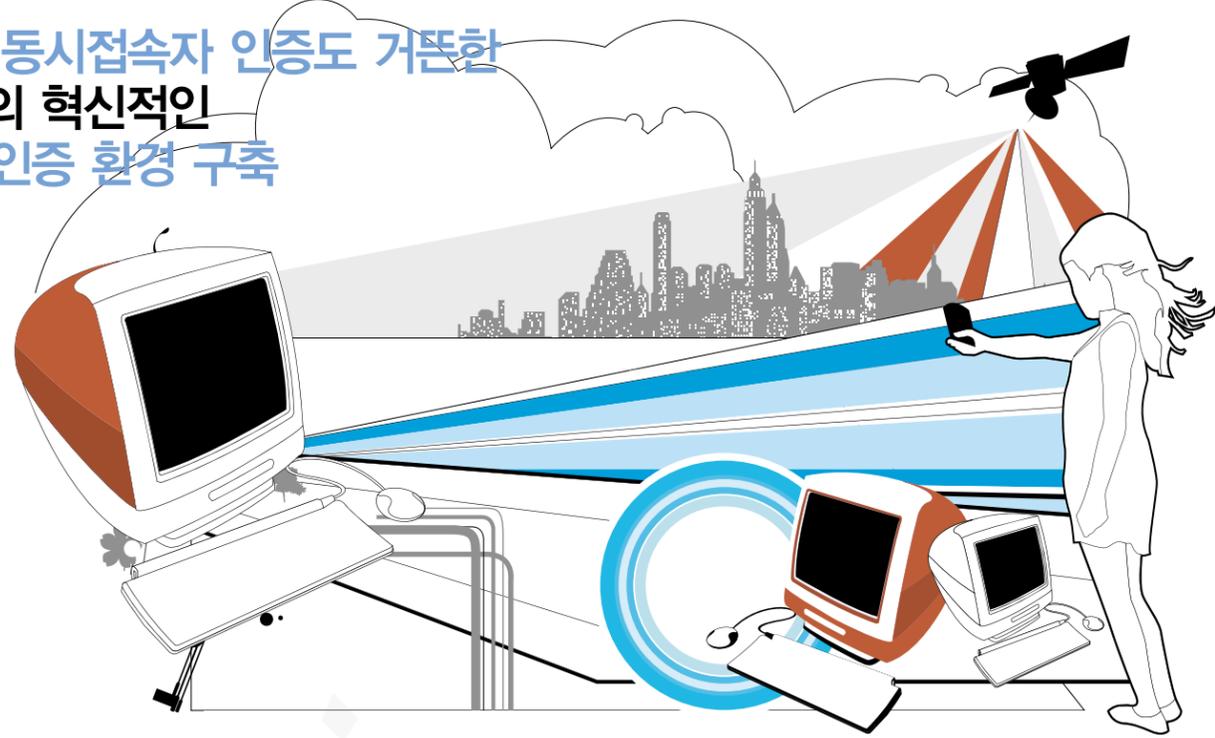
▶ 이번 프로젝트 추진 배경은? M&A 이후 여러 그룹웨어 시스템과 각종 기업 IT 인프라가 혼재되다 보니 통합 환경 구축에 대한 어려움도 컸고, 시스템 관리에 대한 부담도 상당했다. 이에 서로 다른 IT 체제와 업무 프로세스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IT 인프라가 필요했다. 조직 통합력을 동반 상승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그룹웨어와 지식관리, 문서관리, 정보관리 시스템을 아우르는 지식포털을 구축하게 됐다. 3사의 서로 다른 눈높이를 고루 충족시키는 동시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향후 유연성을 담보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솔루션을 선별한 끝에 Microsoft .NET 기반의 지식경영포털 솔루션 MOIN을 선택하게 됐다.

▶ 향후 계획은? 이번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그룹 표준의 지식포털을 구축하며 합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IT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임직원 모두가 롯데그룹 일원이라는 소속감이 확산되었다는 측면에서도 구축 효과가 매우 만족스럽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룹 전체로 지식포털이 확산되기 이전의 파일럿(Pilot) 프로젝트로 볼 수 있으며, 성공적인 구축을 통해 도입 효과가 입증된 만큼 롯데카드를 비롯한 그룹 전체 계열사로 MOIN을 확장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PROJECT OVERVIEW 분야_ 석유화학 소프트웨어 . Microsoft Exchange server 구성 . 롯데대산유화, KP케미칼 등을 새롭게 맞이하며 IT 운영 단일화를 위해 Microsoft .NET 기반의 지식경영포털 솔루션인 MOIN을 도입

| CJ인터넷 |

40만 이상의 동시접속자 인증도 거뜬한 64비트 기반의 혁신적인 통합 사용자 인증 환경 구축



지난 2004년 2월 고객을 위한 통합 인증 서비스를 개시해 관련 업계의 화제를 모았던 CJ인터넷이 또 한 번의 혁신을 단행했다. 바로 기존에 32비트 시스템 상에서 운영되던 통합 인증 서비스를 64비트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2300만이 넘는 가입자에 동시접속자 수가 30만 이상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사용자 수와 트래픽 수를 처리해야 하는 CJ인터넷의 통합 인증 서비스는 이번 64비트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40만 동시접속자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용성과 확장성을 확보하였다. 인터넷 관련 업계에서 64비트 기반의 통합 인증 서비스 시대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CJ인터넷의 사례를 소개한다.

글 ■ 박창선(IT 칼럼니스트) 일러스트 ■ 김원선

SITUATION _ 빠르게 늘고 있는 고객을 감당할 수 있는 확장성 높은 인증 체제 마련 필요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CJ인터넷은 지난 2004년 2월 2000만 이상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 인증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바 있다. 당시 1000만 이상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 인증 시스템 마련이란 점에서 각종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하였다. 2004년에 구축했던 CJ인터넷의 통합 인증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ctive Directory와 통합 인증 분야 전문 업체인 넷츠의 NETS*IM이라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당시 추진되었던 프로젝트 범위는 2500만 이상의 사용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이었으나 이 역시 CJ인터넷의 사세 확장으로 한계를 나타내었다. 바로 2005년 초반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CJ인터넷 R&D팀 홍영구 대리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가용성과 확장성 면에서 볼 때 과거 시스템은 25만 명 내외의 동시접속자 처리에 적합한 환경이었다”라며 “2005년 접어들면서 동시접속자 수가 25만을 넘어서면서 시스템 확장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이용자 및 동시접속자 확대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했던 것이다.

SOLUTION _ 64비트 환경으로 통합 사용자 인증 시스템 이관

2006년 3월 현재 CJ인터넷 넷마블 서비스의 동시접속자 수는 27만 명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2003년에 20만 명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년이 채 안 되어 26%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세에 대비하기 위해 CJ인터넷이 기존 통합 사용자 인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중반부터였다. 홍영구 대리는 “동시접속자 증가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다”며 “여러 방법을 검토하던 중 단순한 시스템 증설이 아닌 64비트로의 전환이 효과적이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 디렉토리 서비스의 특성상 32비트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가장 확실한 대안

으로 대용량 메모리 지원이 가능한 64비트 머신으로의 전환을 택한 것이다. 메모리 어드레스 측면에서 볼 때 32비트 Windows Server의 경우 지원하는 가상 메모리 크기가 4GB라는 제약점이 있는 데 비해 64비트 Windows Server는 16TB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는 것이고 이는 곧 메모리 집약적인 업무 로드를 처리하는 작업의 경우 시스템 퍼포먼스가 크게 높아진다는 소리다. 64비트 컴퓨팅 트렌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각광을 받을 분야로 디렉토리 서비스, DBMS, 그래픽, 테크니컬 컴퓨팅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성능 향상과 관련해 홍영구 대리는 “과거 32비트 시스템의 경우 4GB의 메모리 탑재 모델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한 시스템의 경우 16GB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며 “64비트와 32비트의 경우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32비트 환경에서 CPU 사용률이 80~90%에 이르는 트래픽이 걸렸을 경우 64비트 환경에서는 CPU 사용률이 20~30%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성능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다.

CJ인터넷이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64비트로 전환한 것은 2005년 11월경이었다. 64비트 전환과 관련해 달라진 점은 서버 운영체제가 기존 32비트 Windows Server 2000에서 64비트 Windows Server 2003으로 바뀐 것과 하드웨어와 스토리지 구성이 달라진 것을 꼽을 수 있다. 홍영구 대리는 “디렉토리 서비스는 일종의 인프라이다. 따라서 관련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시스템 레벨에서만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 현황을 고려한 디자인 작업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전 환경 분석을 지원해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전반의 구성에 변화를 주었다”고 말했다.

BENEFIT _ IAM으로 진화하기 위한 초석 마련

이번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CJ인터넷은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 효과는 64비트로 전환하면서 동시접속자 인증 처리 관련 가용성이 확대된 것이다. 홍영구 대리는 “이번에 마련한 시스템의 처리 능력은 동시접속 기준으로 40만 명까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며 “만약 이를 32비트로 처리하려 했다면 메모리 지원의 한계 때문에 결국 서버를 계속 늘릴 수밖에(Scale Out)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서버 도입에 있어서 스케일 아웃 방식이 아닌 스케일 업을 통한 가용성 확보는 곧 시스템 안정성 강화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효과다. 과거 32비트 환경에서 운영되던 통합 인증 시스템은 총 3대의 서버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쉽게 말해 관리 포인트가 3개였다는 소리다. 반면에 64비트로 전환하면서 인증 시스템은 2대로 운영되고 있다. 한 대는 운영 서버이며 다른 하나는 스탠바이 서버로 배치되었으나 사실상 관리 포인트가 하나

로 줄어든 것이다. 물론 2004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싱글 포인트 관리 체제를 마련하긴 했지만 물리적 인프라 구성의 단순화로 얻는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세 번째 효과는 IAM으로 진화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홍영구 대리는 “최근 디렉토리 와 관련해서 IAM(Identity & Access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IAM의 단계로 인증 시스템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적인 SSO(Single Sign On)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CJ인터넷의 경우처럼 2004년 SSO 기반을 구축하고 2005년 이를 고도화한 다음 단계로 IAM에 접근하는 것이 순서란 소리다.

홍영구 대리는 “64비트 전환 다음 작업으로 현재의 SSO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까지 관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In-house 형태로 개발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CJ인터넷의 Active Directory 인프라가 IAM으로 진화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단순한 사용자 인증을 넘어 업무 프로세스는 물론이고 각종 서비스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는 디렉토리 인프라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 더 자세한 정보는 www.microsoft.com/korea/magazin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TERVIEW CJ인터넷 웹개발실 권준택 실장

“IAM 환경으로 디렉토리 인프라를 진화시켜 나아갈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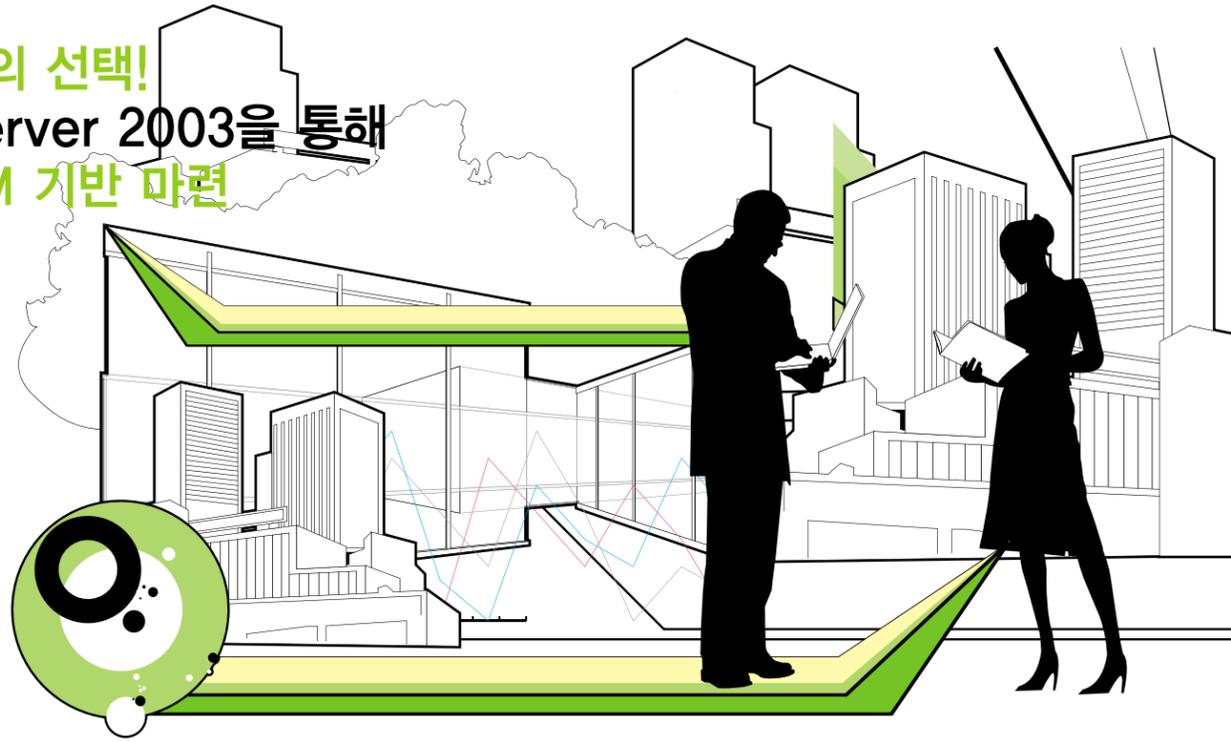


▶ 이번 프로젝트 추진 배경은? 디렉토리 서비스는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에 있어 단순한 내부적인 정보화 이슈가 아니다. 외부 즉 협력 파트너까지 포괄해야 하는 개념이다. 최근 디렉토리와 관련해서 외부 파트너까지 포괄하는 ‘Federation Service’에 대한 가치 인식이 확산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본다. 예를 들자면 포털 사업자와 게임 사업자가 상호 고객들에게 SSO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확장된 개념의 ‘Federation Service’이다. 이는 디렉토리 서비스가 단순한 정보화 인프라 관리 차원이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가용성과 확장성이 우수한 통합 사용자 인증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핵심 선행 과제이다. CJ인터넷이 2004년과 2005년 연이어 디렉토리 인프라 고도화 작업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향후 계획은? 인터넷 비즈니스에 있어서 통합 인증 시스템 구축은 하나의 필수적인 정보화 코스이다. CJ인터넷의 경우 2004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 통합 인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2006년 현재 동시접속자 40만 이상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가용성과 확장성을 확보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된 기반을 통해 궁극적으로 IAM 환경으로 디렉토리 인프라를 진화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 LG경제연구원 |

이노베이터의 선택! Project Server 2003을 통해 전사적 EPM 기반 마련



지난 2005년 하반기 대표적인 국내 Think Tank 중 하나인 LG경제연구원이 Microsoft Office Project Server 2003을 기초로 전사적 EPM을 구축해 관련 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LG경제연구원의 EPM 구축은 정보 근로자가 핵심 자산인 리서치와 컨설팅 비즈니스 부문에서 최근 정보화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의 전형을 보여준 혁신 사례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연구소의 핵심 자산인 인력의 효과적인 관리와 배치라는 단순한 프로젝트 생명주기 관리는 물론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가 및 조직의 지식 역량 강화까지 EPM의 적용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의 EPM 구축 관련 노하우를 소개한다.

글 ■ 박창선(IT 칼럼니스트) 일러스트 ■ 김원선

SITUATION_ 체계적인 관리 프로젝트 체제 마련 필요

그동안 LG경제연구원은 6개 리서치 그룹이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얻은 결과물들을 조직 내 지적 자산으로 체화하기 위해 EDM(Enterprise Data Management), KM(Knowledge Management) 등의 정보화에 투자를 지속해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종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관리 체제에 있어서는 한발 앞선 환경을 구현할 수 있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LG경제연구원 감덕식 선임연구원은 “정보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프로젝트 현황 보고와 최종 산출물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서 “이러다 보니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추진 과정에 대한 팀원들 간의 컨센서스, 중간 산출물에 대한 관리, 종료 이후 사후 관리 등이 시스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전체적인 생명주기(Life Cycle)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LG경제연구원이 인식한 것은 2005년 초반이었다. 이후 LG경제연구원은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반을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EPM(Enterprise Project Management) 구축을 결정하였다.

SOLUTION_ 전사적 EPM 인프라로 Project Server 2003 배치

LG경제연구원은 EPM 구축을 위해 솔루션 검토를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해 감덕식 연구원은 “기능 변경과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확장성 그리고 연구원들에게 친숙한 UI(User Interface)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고 여러 솔루션을 검토했다”며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의 Project Server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LG경제연구원은 Project Server의 커스터마이징 편의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Project Server 2003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기능을 최소화하여 LG경제연구원에 최적화된 EPM의 틀을 짜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Project Server 2003은 경제연구원

만을 위한 버티컬 솔루션이 아니므로 원가, 공기 등 연구소 업무에 불필요한 기능과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어 필요한 기능만 남겨 놓는 과감한 시스템 슬림화 작업이 필요했다”고 감덕식 연구원은 말한다. 그리고 그는 또한 “Project Server 2003이 제공하는 프로젝트 생명주기 관리의 경우, 추진 과정에 초점을 맞춘 컨셉트인 것 같다”며 “LG경제연구원은 여기에 더해 평가, 지식 공유를 통한 가치 확대라는 프로젝트 사후 사이클까지 포괄하는 EPM 구축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LG경제연구원은 Project Server 2003에서 불필요한 기능을 최소화하고 KM 및 평가 시스템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가치혁신(Value Innovation)을 단행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EPM의 생명주기를 크게 계획(Plan), 수행(Do), 평가(See)로 구분했다. 먼저 계획 부분에서는 프로젝트 태스크 정의, 스케줄링, 리소스 배정 등이 핵심 구현 기능으로 사전 정의되었다. 그리고 수행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 실적 및 산출물 관리, 커뮤니케이션 관리, 프로젝트 모니터링 기능이 구현되었다. 세 번째 단계인 평가 단계에서는 연구원들에게 최종 고객과 동료의 평가를 피드백할 수 있는 기능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기능 개발을 통해 LG경제연구원이 구현한 EPM은 클라이언트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솔루션 도입은 거의 없었다. LG경제연구원은 업무의 성격 상 외부 파견이 많으므로 외부에 있는 연구원들도 EPM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웹 상에서 Project Server 2003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웹 포털도 구현하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가 배치되었다. 이에 따라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본사 EPM 시스템에 접속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나 관련 지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BENEFIT_ 리서치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 평가의 Quality 제고

LG경제연구원은 이번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사적 프로젝트 관리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과거와 달리 프로젝트를 생명주기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언제,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인력이 투입되었는지,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상황 뷰(Scorecard View)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연구원의 프로젝트 실적 및 활동 내역 관리를 통한 투명한 성과 평가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프로젝트 산출물과 상급자에 의한 평가 체계가 일반적이었던 EPM 구축 이후에는 클라이언트와 동료로부터의 평가가 추가되었다. 감덕식 연구원은 “연구원 개인 실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평가는 단

순한 인사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녔다”며 “개개인에 대한 프로젝트 성과 및 이력 관리를 통해 연구원의 전문성 즉 경력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인력 관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육성을 위한 도구로 EPM이 역할한다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가 핵심 자산인 LG경제연구원에 있어 성과 관리 및 평가 체제 마련이 갖는 가치가 얼마나 크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세 번째 효과는 프로젝트 수행 산출물 관리를 통한 지식 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이다. 과거 KM과 EDM이 있을 때는 주로 최종 산출물을 관리하는 것이 전사적 지식 관리의 큰 틀이었다. 반면에 EPM 도입 이후에는 프로젝트 추진 관련 노하우 및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되기까지 개개인 연구원의 PC에 축적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쉽게 말해 관리의 시각 지대에 있던 가치 있는 정보들을 조직의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LG경제연구원은 향후 보고서 보안(DRM)과 더불어 기존에 운영하던 KM 및 EDM 등의 백엔드 시스템과 EPM의 연동 범위를 더욱 늘려간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www.microsoft.com/korea/magazin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TERVIEW LG경제연구원 전자통신전략그룹 감덕식 선임연구원

“Project Server 2003의 유연성과 확장성에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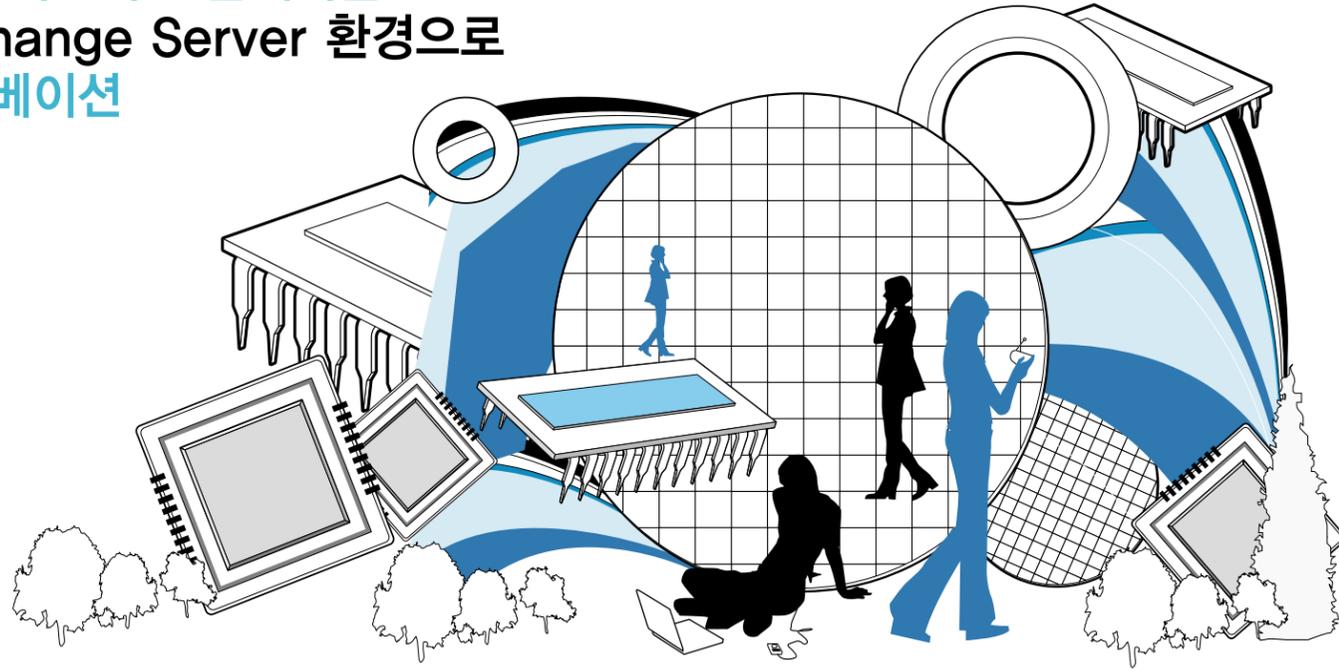
▶ EPM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이유는? LG경제연구원의 비즈니스 단위는 프로젝트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프로젝트 관련한 성과 측정과 사후 관리 부문에 있어서의 혁신에 대한 니즈(Needs)가 컸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EPM 구축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우리와 같이 지식과 정보가 핵심 자산인 비즈니스 유형에서는 성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기초로 한 인재 육성이 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란 결론에 도달하였다.

▶ Project Server 2003 도입 배경은? LG전자의 EPM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당시 경험과 이번 LG경제연구원의 사례를 비교해볼 때 EPM은 업종에 따라 다른 구현 방식이 꼭 필요한 분야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Project Server 2003의 경우 LG경제연구원의 EPM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기능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부분만 추려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 점에서 Project Server 2003과 개발진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다양한 기능을 변경하고 추가하는 데 있어 유연성이 높으며 동시에 EPM의 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KM, EDM 등과의 연계성 면에서도 확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을 담당했던 LG CNS와 큐브테크의 고객지향적인 마인드가 없었다면 앞서 말한 Project Server 2003의 기본적인 장점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PROJECT OVERVIEW 분야 . 연구기관 소프트웨어 . Microsoft Office Project Server 2003, Microsoft Office Project Professional 2003, Microsoft Office Project Web Access,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Microsoft SQL Server 2000 구성 . Project Server를 중심으로 전사적 EPM의 초석을 마련

| 매그나칩반도체 |

노츠 기반의 그룹웨어를 Exchange Server 환경으로 이노베이션



지난 2005년 10월 국내 최초의 System IC 전문 종합 반도체 회사인 매그나칩반도체가 새로운 그룹웨어 시스템을 오픈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창업 이후 빠르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해온 매그나칩반도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정보화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기존에 운영하던 노츠 기반의 그룹웨어는 글로벌 경영 환경 지원을 위한 기능 개선 및 추가 부문에서 유연성이 낮은 동시에 유지 관리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매그나칩반도체의 선택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Exchange Server 2003 기반으로 그룹웨어 인프라를 일대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유연성 높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그룹웨어 인프라를 갖추게 된 매그나칩반도체의 사례를 소개한다.

글 ■ 박창선(IT 칼럼니스트) 일러스트 ■ 김원선

● **PROJECT OVERVIEW** 분야 .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Microsoft Exchange Server 2003 구성 . Exchange Server 2003을 엔진으로 하는 새로운 그룹웨어 시스템을 구축

SITUATION _ 글로벌 경영 지원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필요

고부가가치 중심의 비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최초의 통합 반도체 제조 업체인 매그나칩반도체는 2004년 설립 당시부터 글로벌 비즈니스에 주력해왔다.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상 주요 고객인 전세계 전기/전자 기기 제조 업체들과의 밀접한 협력 관계 형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설립 초기부터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보화 기반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 중 가장 먼저 글로벌 경영 지원을 목표로 개선이 필요했던 분야는 바로 그룹웨어였다. 이와 관련해 매그나칩반도체 CIO/인프라팀의 윤도섭 팀장은 “하이닉스반도체 시절부터 도입해 운영해오던 노츠(Notes) 기반의 시스템이 사용상 문제는 전혀 없었으나 글로벌 경영 지원을 위한 각종 기능 추가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처리할 때 모디파이(Modify)가 어렵다는 제약이 있었다”며 “더군다나 유닉스 기반 머신이다 보니 유지 보수 비용 또한 상당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신규 시스템을 하나 새로 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부적인 판단을 시작으로 2005년 3월부터 본격적인 신규 시스템 도입 검토가 시작되었다.

SOLUTION _ Exchange Server 2003으로 기존 노츠 기반 그룹웨어 대체

이번 프로젝트는 Exchange Server 2003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윤도섭 팀장은 “노츠 시스템 대체를 검토하던 초기부터 Exchange Server 2003을 염두에 두고 비용 및 성능 분석 등의 작업을 했다”며 “사용자 편의성이 높고, 타 시스템과의 연동이 용이하고,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매그나칩반도체가 가고자 하는 글로벌 경영 지원 체제 마련 목표에 부합했다”고 말했다. 기존 노츠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 Exchange Server 2003이었다는 소리다.

그룹웨어 전환 작업은 2005년 7월에 시작되어 같은 해 9월 말 마무리되었다. 이메일과 그룹웨어 관련 기

능은 사실 백엔드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차이점이 크지 않은 편이다. 특히 매그나칩반도체와 같이 기존 노츠 기반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가 웹 기반으로 제공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윤도섭 팀장은 “이번 Exchange Server 2003 도입도 OWA(Outlook Web Access)를 통해 웹 기반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접근성 면에서의 차이는 없다”며 “다만 서비스의 체감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것과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Outlook의 인터페이스와 각종 편의 기능 등이 더해져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차이”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도섭 팀장이 강조하는 기존 노츠 환경과 Exchange Server 2003 간의 차별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다국어 지원 부분에서의 편의성이다. 윤도섭 팀장은 “IT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글로벌 경영 지원이 피부에 직접 와 닿을 때가 바로 외국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라며 “과거 노츠 사용 시절에는 다중 언어가 지원되지 않아 급한 대로 몇 가지 중요 메뉴만 영문화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Exchange Server 2003 환경의 경우 사용자 편의에 따라 영어와 한글 메뉴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작은 차이지만 글로벌 경영 시대를 맞아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옵션이라 할 수 있는 다국어 지원 면에서 Exchange Server 2003이 갖는 편의성이 상당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BENEFIT _ 전사적 EIP 구축의 엔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그룹웨어 기초 확보

이번 프로젝트 완료를 통한 기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용자들이 느끼는 변화인 메시징 전달 및 각종 그룹웨어 관련 서비스의 체감 퍼포먼스가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도섭 팀장은 “메일 용량이 늘고, 기능이 더 많아지고,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변화”라며 “기존 노츠를 3년 유지하는 비용으로 이 정도의 사용자 체감 서비스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말했다.

두 번째 효과는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지원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관련 스탠다드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윤도섭 팀장은 “이제 기업의 정보화는 다양한 외적 변수에 유연히 대처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예로 해외 지사 및 브랜치 오피스 운영 확대, 해외 기업과의 M&A가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도구를 사용해야 하며 다양한 언어 지원에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 번째 효과는 전사적 협업 환경 구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윤도섭 팀장은 “흔히 그룹웨어라 하면 커뮤니케이션과 전자결재 정도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룹웨어의 활용 범위는 상당하다”며 “가령 Exchange Server 2003과 같이 유연성 높은 엔진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그룹웨어와 KM을 연계하여 EIP와 같은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쉽게 말해 EIP와 같은 포털 서비스는 관련 패키지를 도입해 구현해야만 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룹웨어나 KM 등을 진화 발전시켜 나가는 일련의 기능 개선 과정의 목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도섭 팀장은 “전사적 협업을 지원하는 가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개인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한 솔루션과 시스템 증설보다는 그룹웨어와 같은 핵심 서비스를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IT 투자 전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매그나칩반도체는 이번 Exchange Server 2003 기반의 그룹웨어 도입을 시작으로 KM과의 연계, EIP 관련 기능 추가 등의 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더 자세한 정보는 www.microsoft.com/korea/magazin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TERVIEW 매그나칩반도체 CIO/인프라팀 윤도섭 팀장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메일 인프라를 Exchange Server 기반으로 구현”



▶ **Exchange Server 도입 배경은?** 매그나칩반도체가 운영하던 노츠 그룹웨어는 국내에서 가장 빨리 웹 모듈을 도입한 사례 중 하나였다. 그러므로 사용상의 불편함이나 기본 기능상의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회사의 글로벌 경영이 빠르게 확장되다 보니 하나둘씩 제약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이슈는 기능 확장이 어려운 반면 유지 보수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할 대안을 찾던 중 Microsoft Exchange Server 2003을 엔진으로 할 경우 노츠를 3년간 유지 보수할 정도의 비용이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Exchange Server 2003 기반의 그룹웨어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 **Exchange Server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메일 서비스가 웹 상에서 제공되는 것은 이제 일반화된 것 같다. 과거 노츠의 경우도 웹 모듈을 도입해 사용자들에게 웹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되었고, 이번 Exchange Server 2003의 경우도 OWA를 통해 웹 접근이 가능하게 구현되었다. 이러한 웹 기능 외에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능성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메일은 흔히 회사에서 제공하는 업무 지원 중 하나지만 개인적인 도구라고 느껴지는 그런 이중성을 띤 서비스이다. 따라서 웹 접근성 못지않게 클라이언트 툴의 기능성이 중요하다. 주소록, 스케줄링 등이 메시징 못지않게 개인에게 중요하게 활용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인데, 이러한 면에서 볼 때 Exchange Server 2003과 Outlook의 조화가 주는 사용자 편의성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본다.